

설 차례상비용 전통시장 28만원·대형마트 38만원 '역대 최고'

한국물가정보 4인 차례상 비용 조사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35.2% 저렴 전통시장서 사과 3개 가격 42.86% ↑

올해 4인 가족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과일류와 채소류가 25% 이상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24일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구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1500원, 대형마트 38만58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8.90%, 5.79% 상승했다. 대형마트 물가는 전통시장보다 35.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과일류는 품종별 주요 생산 시기에 잦은 강우와 각종 병해충, 병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강추위와 이상기후로 하우스 관리 비용마저 증가한 영향도 반영됐다.

특히 사과와 배 같은 명절 필수 가격이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인머스켓이나 만감류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체 과일류 가격이 올랐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 3개 가격은 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2.86% 올랐다. 대형마트 가격은 1년 전보다 38.35% 오른 1만9770원이었다. 배 3개 가격은 전통시장 1만3500원, 대형마트 1만7970원으로 각각 12.50%, 13.23% 올랐다. 이에 따라 과일 물가는 전통시장 2만8500원, 대형마트 3만7740원으로 각각 26.67%, 25.13% 상승했다.

채소류는 최근 들이닥친 한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이 중 대파와 배추는 강추위와 더불어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공급량이 줄면

서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대파는 전통시장에서 1단에 4000원으로 팔렸다. 이는 작년보다 60% 오른 수준이다. 대형마트 역시 5990원으로 1년 전보다 50.13% 상승했다.

배추는 전통시장에서 1포기에 4000원에 팔렸다. 전년보다는 33.33%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포기에 389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작황 부진으로 견과류 가격도 작년 설보다 상승했다. 수산물물은 전년 대비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다시마와 중국산 조기는 오름세를 보였다.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소고기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다.

공산품 중에서는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내렸다. 청주는 설이 다가오는 다음 달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가 세금 할인을 제도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주류 업체들이 제품 출고가를 낮추고 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올해는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전체 품목 가



가격이 올랐다"며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7000t을 공급하고 과

일류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했다. 정부 할인 지원율도 30%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할인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 지원하고 있다. 김수권기자

홈플러스, 설 선물세트 본 판매 돌입... "가성비 제품 구성"

다음 달 11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 돌입



홈플러스가 다음 달 11일까지 '2024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체 상품의 81%를 5만원대 이하 선물세트로 구성하는 등 가성비 제품에 힘을 썼다.

5만원대 이하 가성비 제품으로는 ▲당도 선별로 맛은 물론 부담 없는 가격까지 쉐킨 '알찬 사과 세트(3만9900원)' ▲전전 2000세트 한정 판매하는 '보맥돼 BBQ 라인업 세트(2만9880원)' ▲100% 국산토종 원조를 사용해 풍

부한 맛을 자랑하는 'CJ 비비고 토종김 5호(9900원·10+1)' ▲활용도 좋은 표고버섯과 백목이버섯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알찬 표고버섯 혼합세트(3만2900원)' 등을 선보인다.

특히 명절 선물의 대명사 스펀지와 3종 이상의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CJ 특별한 선택 N호(4만1230원)'와 'CJ 특별한 선택 스페셜 J호(4만530원)'는 지난 추석 대비 약 7% 인하한 가격에 내놓는다.

명절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축산 제품도 다양

하게 준비했다. ▲3가지 인기부위로 구성된 전점 1000세트 한정 판매하는 '무항생제 한돈 실속 냉장세트(4만3200원)' ▲전통양념소불고기와 연양식소불고기 2가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호주청정우 전통양념 소불고기 냉동세트(4만8930원·5+1)' ▲명절 대표 상품인 갈비와 제주용 정육으로 구성된 '농협인심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15만6000원)' 등이 있다.

홈플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상품으로는 ▲국내 최초 유산균 칼슘, 비타민D를 한 포에 담은 '풀무원 유어락 유산균 칼슘락 더블 기획세트(3만9800원)' ▲LG생활건강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성된 'LG 정성담은 프리미엄 선물세트 2호(5만9900원·1+1)' ▲러 브랜드 초의방 라인 선물세트 '아모레 리조방 프리미엄 탈모증상완화 GIFT 세트(3만2130원)'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위트 레드와인과 신선한 시트러스향의 블랑코로 구성된 가성비 세트 '노체 무데하트 틴도+블랑코 2세트 묶음기획(2만9900원)' ▲진하고 풍부한 아로마와 부드러운 바닐라 오크향이 특징인 '조쉬 까베르네소비농(3만4900원)' ▲와인 애호가들을 위한 럭셔리 데일리 와인 브랜드 덕혼의 베스트셀러를 모은 프리미엄 세트 '덕혼 디오이 까베르네 소비농+멜로 2본입(9만9900원)' 등 다양한 주류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서선욱기자



CU 망그러진 곰 샌드위치X갤럭시 S24 만났다

'갤럭시 S24 망곰이 딸기 샌드 스페셜 에디션' 2종

편의점 CU의 '망그러진 곰 샌드위치'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만났다.

CU는 갤럭시 S24를 들고 있는 망그러진 곰 캐릭터를 패키지에 입힌 '갤럭시 S24 망곰이 딸기 샌드 스페셜 에디션' 2종을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기 캐릭터 망그러진 곰과 협업한 CU의 차별화 상품 '망그러진 곰 딸기 샌드(우유, 초코)' 2종은 지난해 11월 중순 출시 후 줄곧 샌드위치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 판매량도 두 달 만에 40만 개를 돌파했다.

CU가 갤럭시 S24와 손잡고 선보이는 모든 상품에는 신규 피부실 디자인을 포함해 총 73종의 망그러진 곰 캐릭터 피부실이 랜덤으로

동봉돼 있다.

딸기 샌드위치 구매 시 포켓CU 멤버십을 적립하면 갤럭시 S24, 갤럭시 워치6 등으로 구성된 경품 추첨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방문 고객이 많은 용인 에버랜드에 오프라인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CU는 에버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The Magic Gate CU(더 매지 게이트 CU)'에 '갤럭시 S24 I 망그러진 곰' 팝업 체험존을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이곳에선 갤럭시 AI의 생성형 편집 기능을 체험하고 요리사가 된 망그러진 곰 콘셉트로 제작된 포토존 등을 즐길 수 있다.

김희연기자

'아기 울음소리 푹'...11월 출생아 수, 첫 1.7만명대 역대 최저

작년 11월까지 인구 10.6만명 자연 감소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1만8000명 선을 넘지 못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1만7000명대는 역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저치다. 통상 겨울에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도는 중이다.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 2022년 9월 13명(0.1%) 소폭 늘어난 후 다시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

생률은 4.2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 충남, 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전년보다 1만8718명(-8.1%) 감소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준시점이 7월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중위추계 기준)는 23만명으로 관측했다.

인명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2월에 출생아 수에 따라 유동적이긴 한데 작년 합계출산율은 0.71명에서 0.72명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며 "12월 출생아 수가 1만6500명 수준인지, 그 밑으로 떨어질 건지에 따라 23만명이 넘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0.6명대로 떨어지면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출생아 수는 1만

6896만명으로, 1만6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작년 11월까지 한국 인구 10.6만명 자연 감소

11월 사망자 수는 3만255명으로 전년보다 99명(0.3%) 증가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 인구는 1만2724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10만699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6695건으로 전년 대비 760건(-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으로는 17만6091건 혼인에 전년 대비 4284건(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시도는 증가했고, 제주는 유실했다. 나머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는 감소했다.

뉴시스

청정원, '육즙가득 촉촉한 한입떡갈비' 출시

수제 떡갈비 전문점 방식 그대로 직화로 구워



대상 청정원이 다가오는 설 세수 음식은 물론 빈천으로도 즐기 좋은 '육즙가득 촉촉한

한입떡갈비'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제품은 수제 떡갈비 전문점 방식 그대로 직화에 굽고, 양념을 고기 겉면에 코팅하듯이 입혀 깊은 풍미와 감칠맛이 특징이다.

갈빗살을 굵게 다져 대파와 양파, 마늘과 함께 차대듯 반죽해 식감을 살렸고, 고온에서 직화로 구워 불맛을 입혔다.

양념장은 간장에 배와 사과, 양파, 대파 등 과일과 채소를 넣었다.

프라이팬 대신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도 식감이 유지된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손이 많이 가는 떡갈비 메뉴를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